

경북 칠곡군 지천면의 하산동층에서 산출된 공룡발자국

임성규¹, 김용상², 한은희^{2*}

경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¹, 진평 중학교²

최근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의 야산 계곡에서 약 1000여개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다. 이 지역은 하부 백악기의 경상누층군 신동군층 하산동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룡발자국들은 역질 사암의 지층면에서 산출된다.

이곳의 발자국의 모양은 중소 타원형(장경 10~30cm)과 지름 약 80cm 크기의 대형타원형의 두 종류이다. 중소타원형 발자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발가락 윤곽은 나타나지 않거나 아주 희미하게 나타난다. 그러나 극소수의 발자국에서는 세 개의 발가락 윤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각류의 발자국으로 추정된다. 대형 타원형의 발자국들은 7~8개 산출되나 모두 발가락 윤곽은 나타나지 않고 보행렬 해석도 분명하지 않으나 대형 용각류의 발자국으로 추정된다.

이 지역의 발자국들에서 발가락 자국이 잘 보존되지 못한 것과 발자국 둘레에 언덕모양의 테두리(raised rim)가 발달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공룡이 거닐었던 이 지역의 하층(substrate)이 조립질 모래가 우세한 퇴적물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.